산추 방적 - 호주의 신종면으로 신소재 개발

데님용 얼룩 실을 주로 뽑고 있는 산추(山忠) 방적은 호주에서 개발된 새로운 종류의 원면을 도입하여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이 신소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면에서도 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탠덤 카드기(tandem card)를 도입하였는데, 머지 않아 모든 카드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호주의 신종 원면은 현지의 면화상과 과학자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산추 방적이 200표(俵) 도입하여 방적을 시험 중이다. 원면의 특징은 보통의 호주 면보다 섬유장이 길어 장면과 비슷할 정도이다. 이제까지의 면사보다도 약연사를 뽑을 수 있으며, 실의 촉감이 소프트하다고 한다.

산추 방적의 모기업이 면화상 산추 면업이므로, 원면 특화에는 남다른 열의를 갖고 있다. 이 외에도 짐바브웨 면으로 뽑은 실 “선알파”는 이 원면 중에서도 최상급의 “부미”만으로 뽑았으며, 목화를 손으로 채취해 협잡물(挾雜物)이 염려되지만 기계로 손상된 섬유가 없으며, 과거에 영국령이었으므로 영국식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면의 품질이 좋다. 중급의 원면으로서 색이 희고 광택감이나 윤기가 있으며, 염색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다. 2004년부터는 그리스 면으로 뽑은 “그리피”도 판매를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는 스스로 원면 검사도 강화하여 1주일에 1번을 방적 검사 협회에서 수입 원면을 검사하고 있다. 또한 카드기도 모두 탠덤 카드기로 교체하면 실의 품질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